

『金雲翹傳』의 東아시아 傳播와 影響 연구

崔 溶 澈*

<目 次>

1. 머리말
2. 『金雲翹傳』의 한국전래와 소개 및 번역
3. 『金雲翹傳』의 일본전파와 번역 및 번안
4. 『金雲翹傳』의 월남전파와 서사시의 출현
5. 맺음말

1. 머리말

중국의 明末清初에 유행하던 재자가인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의 하나인 『金雲翹傳』은 20회 짜리 중편소설이다. 후에 나온 판본 중에는 문중의 시사를 삭제하고 『雙奇夢』 혹은 『雙和歡』이라고 고친 것도 있다. 문중에 康熙帝의 이름에 들어있는 호자를 避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초이전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本衙藏板本, 嘯華軒刊本, 談惜軒刊本 등이 있다.

명말 중국의 동남해안지역에서 거사하여 관군에 대항하다가 섬멸된 徐海의 애첩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王翠翹를 중심 인물로 하는 이 작품은 명말 이래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지던 王翠翹고사가 백화소설로 정착된 가장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¹⁾ 王翠翹와 그녀의 여동생 王翠雲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1) 필자는 본고에 앞서 「王翠翹故事의 변천과 金雲翹傳의 作品분석」(『中國語文論叢』 제16집, 1999. 6.)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본고는 그 후속 편에

그리고 그들의 상대역 남성인 金重의 이름을 따서 『金瓶梅』의 전례를 따라 독특한 제목을 만든 것도 이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에서는 청초의 順治연간에 天花藏主人의 서문이 있는 간행본이 가장 이른 것이고, 그후 康熙연간에 나온 刪節本도 널리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미 乾隆연간인 1754년 日本에 전해진 기록이 있고, 일본 문인들은 이를 다시 개편하여 다양한 작품을 유행시킨 바 있으며, 嘉慶연간인 1812년에는 越南시인 阮攸가 北京에 사절로 파견되었다가 구입한 뒤 귀국하여 베트남 특유의 喃字(字喃) 문자로 새로 쓴 장편서사시를 널리 유행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英祖연간인 1762년 完山李氏가 쓴 『中國小說繪模本』의 서문에 『王翠翹傳』이라는 이름으로 저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늘날 소장본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1921년 梁白華가 『開關』지에 일부를 번역하고 내용을 소개한 문장이 남아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明末이래 중국에서는 문언필기와 話本소설, 백화중편소설 및 회국 작품으로서 다양한 王翠翹고사가 전해진 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역시 수많은 재자가인소설의 하나로서만 대접받았을 뿐 별다르게 큰 주목을 받은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동아시아의 인접국가인 우리 나라와 일본, 베트남 등에서 널리 환영받는 작품이 되었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민족문학의 대표작으로서 특별히 각광받은 바 있어서 오늘날 세계 학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최근 東아시아의 比較文學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金雲翹傳』에 대한 연구는 자국의 민족문화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베트남을 위시하여 중국과 대만, 일본 등지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이에 관한 별다른 소개의 글이나 논

문이 매우 드문 상태에서²⁾ 이 작품의 고사유래와 판본의 전파, 인물분석 및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파와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完山李氏나 梁白華의 관련 자료 이외에도 『金雲翹傳』 혹은 王翠翹고사의 한국전파 및 영향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도 학계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및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파와 소개, 번역, 번안 및 다양한 영향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年表를 앞의 논문에 이어 본고에서도 부록으로 실었으며 梁白華의 『破睡漫草』 全文을 역시 부록으로 轉載하여 참고로 삼도록 하였다.

2. 『金雲翹傳』의 한국전래와 소개 번역

한국에 소장된 중국소설 판본 중에서 재자가인소설 『金雲翹傳』은 찾아볼 수 없다.³⁾ 일찍이 英祖38년(1762) 궁중의 暎嬪 完山李氏가 『中國小說繪模本』의 서문에 기록한 총 83종의 서목 중에 74종이 소설작품인데 그 중에 『王翠翹傳』이 들어있다.

그러나 完山李氏가 기록한 『王翠翹傳』이 과연 어떤 형태의 작품이었는가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 작품이 文言으로서의 원전일 가능성이 있다. 즉 余懷의 『王翠翹傳』이 그대

2) 臺灣 中正大學의 陳益源교수가 국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관련 논문을 중국어로 발표한 바 있으며(1998년도 중국어문학 국제회의, 후에 『중국어문논총』 제15집에 수록됨, 1998.12), 서울대 趙東一교수가 낸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지식산업사, 1999.4)에 「번역으로 맺어진 관계·중국과 월남소설」을 논하면서 주로 『金雲翹傳』의 전파와 영향에 대해서 다루었다.

3) 崔溶澈·朴在淵 輯錄, 『韓國所見中國通俗小說書目』, 『중국소설회모본』부록, 강원대 출판부, 1993.

로 소개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완산이씨가 이 서문에서 대부분 통속소설을 소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책의 앞뒤로 『文苑植橘』과 같은 문언소설선집과 『山中一夕話』와 같은 문언소화집도 들어 있고 문언작품으로 보이는 『破閑談』도 보이기 때문에 『王翠翹傳』이 반드시 문언이 아니라는 확증도 없다. 중국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판본에는 모두 『金雲翹傳』이라고 했고 후대에 『雙奇夢』이나 『雙和歡』이라고 개칭한 바는 있지만 백화소설로서 『王翠翹傳』이란 이름을 쓴 적은 없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작품이 백화소설일 것이라는 추정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왕취교인 점을 감안하여 『金雲翹傳』이란 서명을 쓰지 않고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서명을 붙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함께 인용된 『聘聘傳』이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하는데 『剪燈餘話』의 권말에 실린 「賈雲華還魂記」⁴⁾를 번역 내지 번안하면서 『빙빙전』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리에서 만약 완산이씨가 언급한 『王翠翹傳』이 재자가인소설 『金雲翹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작일 가능성보다는 번역본일 가능성이 있다는 크다고도 하겠다.⁵⁾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원문도 번역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국에는 『王翠翹傳』이 수록된 『香艷叢書』가 몇 군데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⁶⁾ 혹시 그 문언필기작품인 『王翠翹傳』 자체가 번역

4) 李昌祺(1376-1452)의 『剪燈餘話』는 전4권 20편의 작품이 실리고 권말에 「還魂記」 1편이 따로 실려 있었는데(서문에 의함), 1957년 고전문학출판사의 周楞伽교주본에는 후에 발굴된 「至正妓人行」을 추가하여 전 5권 22편을 수록하고 있다. 제5권에 실린 「賈雲華還魂記」는 후에 周清源이 개편하여 『西湖二集』의 「灑雪堂巧結良緣」을 만들었고 梅孝己의 『灑雪堂』 傳奇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5) 朴在淵편 『中國小說繪模本·解題』(강원대출판부, 1993), 「樂善齋本聘聘傳解題」(『빙빙전』, 학고방, 1995) 등 참조

6) 예를 들면 國會圖書館所藏『古書目錄』에 『香艷叢書』가 들어있고 高大圖書館『漢籍目錄』(舊藏)에도 소장되어 있다. 書誌사항은 다음과 같다. 國學扶輪社 校輯, 中國鉛印, 上海 中國圖書公司 民國三年(1914), 20집 80

되었을지도 모른다.

王翠翹고사가 들어있는 단편 화본소설로는 『型世言』(제7회)에 들어 있는 「胡總制巧用華棟卿, 王翠翹死報徐明山」을 들 수 있다. 명말 陸人龍에 의해 편찬되고 40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된 『형세언』은 중국에서 일찍이 없어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奎章閣에만 유일하게 남아 전하고 있는 작품집이므로 이를 통해서 王翠翹故事가 전해졌음은 익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 책은 널리 전파되지는 않은 듯 하고 일부 문인들만이 익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 나라에서 일찍이 번역된 『형세언』에도 다행히 포함되어 있으니 王翠翹고사는 원문은 물론 우리말로도 국내 독자들에게 읽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세기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중국문학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해박한 중국문학의 상식을 가지고 능란한 우리말로 다양한 중국작품을 소개하였던 인물로는 단연 白華 梁建植을 꼽을 수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양백화의 수많은 글 중에서 『金雲翹傳』을 평가하고 일부 번역 소개한 글이 남아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762년 이후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던 『金雲翹傳』이 1921년에 다시 우리 나라 독자들의 면전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양백화의 글은 『개벽』 12호에서 14호까지 3차례 연재된 「破睡漫草」라는 제목으로 된 글인데 “一. 金雲翹傳”이라고 되어 있어 이 작품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다른 작품들도 같은 형태로 소개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첫 회분에 연재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둘째 회에도 중복이 되고 있어 당시 편집의 부실했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 글의 전문은 이미 『양백화문집』에 수록해 놓았으므로⁷⁾ 여기서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당시

책, 序: 宣統元年(1909), 刊記: 中華民國三年(1914), 中國圖書公司和記. 『王翠翹傳』은 第五集 卷三에 실려있는데 “莆田 余懷濟心著”로 밝혀놓고 있다. 오늘날 통행본으로는 이를 그대로 영인한 人民文學出版社本(1994)이 있다.

양백화가 평가하고 있었던 『金雲翹傳』의 가치와 그 이해의 폭을 가늠하고자 한다.

『金雲翹傳』에 대한 소개와 평론의 문장으로서 사실 梁白華의 글이 20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평론계 중에서는 비교적 앞서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1931년 孫楷第가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에서 비로소 『金雲翹傳』의 판본을 저록하고 간략한 평문을 기록한 것이 최초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보다 10년 앞서 1921년에 『開闢』지에 세 차례 연재 발표한 「破睡漫草—金雲翹傳」에서 중국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이 작품의 낯지 않은 평가와 구체적인 내용소개 및 일부 번역을 동시에 가하고 있어 『金雲翹傳』 연구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연구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궁금한 것은 당시 양백화가 읽은 판본이 과연 무엇이였을까 하는 것이다. 당시 아직 신 활자본의 『金雲翹傳』이 나오지 않았을 때이니 적어도 清代 판본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이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필시 양백화가 소장하고 있던 판본이 일실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梁白華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金雲翹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한 경우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백화가 들연 이 작품에 대한 해제와 번역을 하여 잡지에 연재하겠다고 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궁금하다. 그는 중국소설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심을 표명했던 사람이다. 그는 이보다 앞서 『西遊記』에 대한 평론을 발표하거나 중국소설 전반에 걸친 소개를 한 바도 있었고(1917), 樂善齋 번역본 이후 최초로 『紅樓夢』을 번역하여 『每日申報』에 연재하기도(1918) 하였다. 하지만 당시 문학사나 소설사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사실 당시는 아직 魯迅의 『중국소설사략』조차 나오기 직전이었다) 『金雲翹傳』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연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특기할 만한 일이다.⁸⁾

7) 『양백화문집』 제3권, 남윤수·박재연·김영복편, 강원대출판부, 1995.

梁白華는 이 글에서 서론적인 언급이 끝나고 『金雲翹傳』의 작자가 靑心才人임을 밝히고 나서 작품의 평가를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그 특색을 주장하고 있다.

『金雲翹傳』 한 편은 靑心才인이 지은 바라. 중국소설 중에 그다지 걸작이라 칭할 것은 못 되도다. 그러나 순결무구한 소녀가 주변의 경우에 끌려 마침내 烟花風月地에 떨어져 널리 고초를 맛보고 갖추 艱難을 겪는 것을 敍한 것이 저으기 볼 만한 것이 없지 않도다. 다만 결함의 정철을 보하여 대단원을 경사로 打出한 것은 이런 소설의 상투 수단이다. 저 현대의 소설을 看過한 눈으로 미참 심각한 것이 아니면 마음을 위로치 못하는 독자에게 대하여는 아마 불만족함이 심하리로다. 否라. 有함이 불가한 결말을 지은 것은 好文의 무리가 깊이 동정을 표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경력의 곡절이 있고 浮世義理의 무정한 것을 述來하여 步步大破裂에 가깝게 하는 수완에 이르러는 또한 볼 만한 것이 없다 못하리니 文辭의 綺麗를 尙하고 각색의 何如를 불고하는 중국에 있어서는 도리어 卓絶한 것이 있도다. 『홍루몽』의 착잡함, 『금병매』의 淫猥에 失함, 나는 차라리 『金雲翹傳』의 짧고 脈脈一貫한 것을 취하여 『수호전』, 『서유기』 이외에 중국소설을 玩賞코저 하는 선비에게 推讚코저 하노니 『平山冷燕』의 한갓 싹구로서 滿載함과 『玉嬌梨』의 평평하여 凡調임과 같은 것은 원래 족히 취할 것이 못된다. 하물며 『五色石』이며 『今古奇觀』이라. 『雜事秘辛』으로써 幽艶하다 칭하고 『飛燕外傳』으로써 奇絶하다 이르니 나는 중국문학을 위하여 이를 슬퍼하지 아니치 못한다.⁹⁾

여기서 양백화는 『金雲翹傳』이 중국소설사에서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며 상당히 독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심지어 『홍루몽』과 『금병매』에 도전하여 전자가 너무 복잡다단한 단점이 있고, 후자가 지나친 외설묘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金雲

8) 양백화가 남긴 기록은 대체로 남아있어 정리되었지만 그의 평론문이나 번역문에 대한 자료, 혹은 근거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된 바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9) 原典은 『開闢』제12호(1921.6)로 발표되었고, 현재 『양백화문집』제3집(pp.167~168)에 재수록 되었다.

翹傳』이 더 낫겠노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타 명말청초의 재자가인소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평산냉연』이나 『옥교리』, 단편백화소설집인 『오색석』과 『금고기관』 등은 각각 여러 가지 이유에서 『金雲翹傳』을 따를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어 주목된다. 1931년 孫楷第가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에 이 책을 저록할 때 마지막 단락에 그다지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저 “그리하여 세상의 속인은 정말로 구제할 방도가 없음을 탄식하노라. 고인의 기이한 절개와 지극한 행동이 불행히도 일개 속인의 책으로 들어갔으니 그 살풍경이 또한 이와 같도다”¹⁰⁾라고 폄하한 것에 비한다면 그보다 10년 앞서 양백화가 내린 작품 평가는 그야말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양백화의 이 글은 단순한 소개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번역문도 아니다. 그는 자유자재로 『金雲翹傳』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때에 따라 직접 번역도 하고 비평도 하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기도 하였다. 다만 각 회별로 내용을 소개하면서 20회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다.

어쨌든 梁白華의 「破睡漫錄」은 『金雲翹傳』연구사에서 중요한 평론 및 번역으로 주목받아야 하며 특히 일본이나 베트남에 비해 직접적인 번역본이나 번안소설 등이 없는 우리 나라의 경우 소중한 수확으로 간주해야 할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3. 『金雲翹傳』의 일본전파와 번역 및 번안

『金雲翹傳』의 중국 刊本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초 順治연간의 것으로 추정되는 繁本(김성탄평론본)과 康熙연간에 나온 嘯華軒간

10) 孫楷第,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臺灣: 鳳凰出版社, 영인본, p.66) : 因嘆世之俗人直是不可救療. 古人奇節至行, 不幸入庸俗人書中, 其煞風景有如是也.

본이 있었다. 이러한 판본이 해외에 전파된 기록으로는 日本의 경우가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乾隆19년(1754)에 이미 일본에서 수입한 중국도서의 목록을 적은 船載書目에 『金雲翹傳』이 저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은 모두 9종이나 되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셈이다.

大塚秀高가 편찬한 『增補中國通俗小說書目』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중국과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¹⁾

「本衙藏板」, 8×20, 無圖, 順治間?刊, 大連市圖書館·大谷¹²⁾

「刊本」 4권, 10×25, 無圖, 康熙間?刊, 大連市圖書館,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雙紅堂文庫,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倉石文庫

「嘯華軒藏板」, 4권, 10×25, 康熙間?刊, 北京圖書館, 鄭振鐸, 中國人民大學/(中型本)東北大學狩野文庫, 無窮會織田文庫¹³⁾(淺草書屋藏前四回殘本)

「解頤堂刊本『雙奇夢傳』」, 4권, 9×17, 無圖, 道光14年(1834)刊, 京都大學, 神山閏次 所藏

「談惜軒刊本『雙奇夢』」, 4권, 9×17, 無圖, 小, 吳曉鈴, 하버드大學燕京研究所漢和圖書館, 齊如山, 北京圖書館, 鄭振鐸

「刊本」 天津市人民圖書館, 周紹良, 吳曉鈴, 北京中國書店, 新宮文庫 所藏, 傅惜華 所藏

「鈔本」, 4권, 9×20~22, 南京圖書館¹⁴⁾

11) 大塚秀高, 『增補中國通俗小說書目』(東京: 汲古書院, 1987), pp.75~76.

12) 여기서 大谷이라 하는 것은 현재 大連도서관에 소장된 일본인 大谷光瑞(1876-1947)의 문고를 말한다. 1925년 大谷光瑞는 당시 滿鐵부속이었던 大連도서관에 자신이 일본에서부터 소장하여 오던 다량의 장서를 헌납하였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매우 희귀한 明末淸初의 소설작품이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일찍이 일본에 전해졌던 판본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大谷本淸小説攷錄』(劉鎮偉, 王若, 韓俊英編著, 大連出版社, 1995)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13) 大塚秀高는 따로 언급이 없었지만 董文成은 이 판본이 無窮會에 2종이 있다고 하였고 대형본으로 표현하였다. 董文成은 일본에 모두 9부가 있다고 하였는데 大連도서관의 大谷本 등을 따로 셈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판본이 일본에 전파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밝힌 대로 1754년의 船載文庫에 이 책이 들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9년 후인 1763년(寶曆13)에는 일본 첫번째(즉 해외에서의 첫번째) 번역본이 출현하게 되는데 西田維則의 『繡像通俗金翹傳』이 바로 그것이다. 간행자는 大阪藤屋彌兵衛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董文成의 연구성과를 참조할 만하다. 필자는 주로 이를 참조하여 서술하고자 한다.¹⁴⁾

이 번역본의 제목은 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金雲翹傳』이라고 한 原典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특이하게도 작중의 金重과 王翠翹 두 사람의 이름만을 따서 『김교전』이라고 붙이고 있다. 이는 혹시 무의식중에 王翠雲을 대표하는 雲字를 빠뜨려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어에서 ‘金翹’의 발음은 ‘金魚’와 매우 비슷하므로 훗날 저명한 일본 작가 曲亭馬琴이 이 작품을 고쳐 새로 쓰면서 왕취교의 전생을 이 금빛 물고기(金魚)로 설정하고 그녀에게 ‘魚子’라는 애칭을 붙여 일본여성의 명명방식에 부합하도록 한 발상은 주목할 만하다. 曲亭馬琴은 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이 쓴 작품 제목도 아예 『風俗金魚傳』으로 바꿔 놓고 있는데 이는 물론 『通俗金翹傳』에서 환골탈태한 것일 뿐이다.

번역본 『繡像通俗金翹傳』은 중국의 원전 『金雲翹傳』에 비하면 훨씬 정성 들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문 외에 작중인물이나 사건을 그려 넣은 繡像(삽화)이 들어갔고 총 5권으로 분권되었으며 책

14) 大塚秀高의 조사에 의하면 孫楷第의 『中國通俗小說書目』에서 著錄한 東京帝大文學部支那哲學研究室藏本과 內閣文庫의 8행20자본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5) 董文成의 「金雲翹傳與日本江戸後期文學」은 그의 저서 『清代文學論稿』(春風文藝出版社, 1994)에 수록되어 있다. 사실 日本에서의 연구자로서는 川本邦衛교수가 가장 권위있다. 그의 논문으로는 「金雲翹傳成立をめぐる若干の問題」(『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紀要』2, 1971) 등이 있다.

수로는 6책으로 장정되었다. 중국에서 明末清初에 무수히 쏟아져 나온 재자가인소설의 하나에 불과했던 『金雲翹傳』은 해외로 전파되는 행운을 얻었을 때 훨씬 융성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중국 문헌의 해외전파사에서 종종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剪燈新話』의 경우도 중국에서보다 당시 朝鮮이나 日本, 베트남 등지에서 훨씬 더 소중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며 그에 힘입어 오늘날 온전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金雲翹傳』이 일본 문학에 끼친 영향으로서는 우선 馬田柳浪이 지은 『朝顔日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朝顔日記』는 1812년(일본 文化8년)에 간행되었다. 평론가 永春水는 일찍이 동시대 소설중에서 가장 특출한 작품으로서 전편이 중국적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소설이 중국소설 『金雲翹傳』을 근거로 개편한 작품임을 밝힌 바 있다. 董文成의 분석에 의하면 다음의 몇 대목이 특히 상호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朝顔日記』의 권5 제12회 「목기(目奇)」에서 여주인공 深雪은 사랑하는 연인 阿蘇次郎을 찾아다니다가 불행하게도 기생집 주인 脫圈吉兵衛에게 잡혀 기생집으로 끌려가지만 끝까지 버티며 단도를 꺼내 자결할 준비까지 하는 것을 보고 안주인 阿六의 동정을 받아 마침내 풀려나는 내용인데 이는 『金雲翹傳』 제8회 「王孝女甘心白刃, 馬秀媽計賺紅顏」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王翠翹는 아버지를 구출하고 집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칭 臨淸 사람이라고 하는 馬不進에게 첩으로 몸을 파는데 알고 보니 자신을 기생집에 넘겨 손님을 받기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머리깎는 칼을 꺼내 자신의 목을 그었으나 자살은 미수로 그치고 말았다. 여기서 기생어멈은 또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왕취교를 궁지로 몰아가는데 일본 작가는 보다 선량한 인물로 바꾸어 여주인공의 소원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또 『朝顔日記』의 권6 제14회 「川」에는 남 주인공 阿蘇次郎이 이름

을 駒澤으로 바꾸고 어느 여관에 자신의 政敵인 岩代瀑布太와 우연히 함께 머물며 맹인 여인의 노래 “朝顔歌”(나팔꽃의 노래)를 듣는 대목이 나온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애인 深雪이 눈앞에 나타나 자신과의 사랑을 노래로 부르고 있건만 그는 정적 앞에서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입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金雲翹傳』에서는 제15회 「活地獄忍泣吞聲，假慈悲寫經了願」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왕취교가 無錫의 생원인 東守에게 보석으로 구출되어 첩이 된 이후 그 본처가 심한 투기를 하여 은밀히 사람을 시켜 강도를 위장하여 취교를 잡아다 본가로 데려와 하녀로 부리고 있었다. 이때 외지에서 돌아온 東守는 당시 불에 탄 여자 시신을 본 마당이라 왕취교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살아있는 모습을 대했으나 본처의 투기가 두려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만 있었다. 이에 비하면 日本 작품에서는 여주인공을 맹인으로 설정하여 사랑하는 님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였고, 남 주인공은 정적의 눈에 발각되지 않도록 신분을 감추고 있어 사내 대장부로서의 체면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고 갈등에 휩싸이게 안배하고 있다.

『朝顔日記』는 『金雲翹傳』 이외에 청대 희곡작품 孔尙任의 『桃花扇』에서의 소재 활용방식을 잘 이용하고 있다. 부채 위에 물은 핏자국으로 붉은 복숭아꽃을 그려 넣었던 『도화선』처럼 『朝顔日記』에서는 남녀주인공의 첫 만남에서 사랑을 느꼈을 때 여인의 요청으로 그녀 부채에 남자가 나팔꽃 한 송이를 그려주고 시를 적어주어 사건의 맥락으로 이어간다는 줄거리다. 이밖에도 馮夢龍의 『警世通言』(제1권)에 들어있는 「俞伯牙擘琴謝知音」이나 『醒世恒言』(제28권)에 들어있는 「吳衙內隣舟赴約」, 또는 유명한 재자가인 소설 『平山冷燕』 등의 중국소설을 널리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雲翹傳』과 일본 문학의 관계는 앞서 이미 언급한 曲亭馬琴의 『風俗金魚傳』과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는 일본 에도(江戶)시기의 명실상부한 통속소설작가로서 젊은 시절부터 중국의 『三國演義』, 『水滸傳』, 『三遂平妖傳』 등의 장편소설을 탐독한 바 있다. 그는 중국소설 10여 편의 작품을 참고로 하고 대담한 허구를 구사하여 자신의 소설 『八犬傳』을 창작하였다. 『八犬傳』은 전체 명칭이 『南總里見八犬傳』으로서 모두 9집, 48권의 180회, 총106책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이다. 이는 그가 28년의 긴 세월을 걸쳐 만년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한 대작이다. 그의 또 다른 작품 『風俗金魚傳』은 1829년(일본 文政12년)에서 1832년(天保3년) 사이에 만든 것으로 간행자는 江戶森屋治兵衛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의 대체적인 내용은 『金雲翹傳』에서 가져 왔지만 人名과 地名 등을 철저히 일본식으로 바꿔 변화시킨 작품이다. 최초의 번역본을 근거로 하였지만 제목은 金重과 魚子(물고기에서 환생한 소녀) 사이의 사연을 그린 작품이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역시 董文成의 상호 비교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風俗金魚傳』에서 철저히 고친 지명과 인명을 살펴보자. 『金雲翹傳』의 주인공이 살았던 北京은 『풍속금어전』에서 攝津國 難波村으로 고쳐졌고, 前書에서 金重의 숙부가 장사하다가 죽은 곳은 遼陽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鎌倉으로 설정하였으며, 왕취교가 기생집으로 팔려간 곳은 臨淄였는데 이 책에서는 長國赤間이 되었고, 왕취교가 첩으로 들어가 정을 들이고 함께 살던 東守는 無錫사람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赤穂라는 곳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錢塘은 常陸沖으로, 臺州는 大磯로, 杭州는 潮來 등으로 각각 일본 사정에 맞게 지명을 안배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金雲翹傳』의 중국 인물도 모두 일본 인물로 새로 만들어졌으니 왕취교의 부친 員外 王兩松은 『풍속금어전』에서 외국의 금빛 물고기(금붕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浪人 船尾鱗藏으로 설정하였고 남 주인공 金重은 일본식으로 바꿔 金重郎으로 불렸으며, 王翠翹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빛 물고기가 환생한 여성으로 구성하

여 魚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魚子(魚子)는 원래 天竺國(즉 인도) 無熱池에 살고 있던 한 마리의 금붕어였으나 작은 금붕어를 많이 잡아먹었던 까닭에 인간으로 환생하면서 갖가지 고난으로 인과응보를 겪은 뒤에 마침내 음덕을 쌓아 비구니가 된다는 얘기다. 왕취교가 비구니로 된 후의 이름은 濯泉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妙龍이라고 붙이고 있다. 왕취교의 누이 王翠雲은 乙魚로 고치고 남동생 王觀은 鱸二郎으로 명명하여 이들 삼남매를 모두 물고기와 관련 있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며 여 주인공의 道號까지 龍字를 붙인 것은 물고기가 득도하여 용으로 승천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이는 모두 翠翹의 翹字가 일본 발음에서 魚字와 유사하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왕취교를 총애했던 徐海는 원래 왜구와 결탁하여 중국 연해안에서 도적질을 일삼는 해적의 신분이었으나 이 책에서는 嘉吉연간(1441-1443)에 난중에 죽은 자의 아들로 등장하며 이름은 下野太郎氏武로 하였다. 기타 대부분의 등장이름도 적절하게 새롭게 명명했는데 유일하게 왕취교를 구출한 여승 覺緣은 이 작품에서도 그대로 등장하며 비교적 신비롭게 묘사하여 觀音의 화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王翠翹傳』과 『풍속금어전』 사이에는 작자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전서의 여주인공 왕취교는 여성으로서의 갖은 굴욕과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風俗金魚傳』의 작자는 주인공 魚子에게 참을 수 없는 오욕의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폭력으로 항거하는 반항적인 성격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비교적 온유둔후하고 정숙한 현모양처형의 인물로 그리고 있다. 작자 曲亭馬琴은 당시 일본 번역본 『通俗金翹傳』의 도덕적 타락과 노골적 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저 『金翹傳』이라는 작품은 음란한 기풍을 드러내 세상의 인기를 구하고자 하여 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욕을 부추기는 혐의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가 『풍속금어전』을 창작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고쳐 썼을 것임은 쉽

게 알 수 있다.

『金雲翹傳』은 일본 에도 문학에 상당히 폭넓은 영향을 끼쳐 『邂逅物語』, 『復讐奇談安積沼』, 『櫻姬全傳曙草紙』, 『標注園之雪』, 『朝顔日記』 등의 창작에 이용되었는데 특히 『朝顔日記』의 “旅館之段”은 훗날 희극으로 발전하여 人口에 膾炙되는 명장면이 되었다. 『邂逅物語』은 1797년(寬政9년)에 간행된 雲府觀天步의 작품으로 칩실과 서자를 학대하는 투기 많은 여자의 인과응보를 그린 것인데 『聊齋志異』의 「大男」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金雲翹傳』과 명대 희곡 『療妬羹記』 등을 널리 활용하였다. 『復讐奇談安積沼』은 『金雲翹傳』외에 『醒世恒言』(제33권)의 「十五貫戲言成巧禍」와 『龍圖公案』의 「阿彌陀佛講和」 등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金雲翹傳』의 월남전파와 서사시의 출현

베트남의 고전문학에서 차지하는 『金雲翹傳』의 위치는 대단히 높다. 베트남의 유명한 시인 阮攸(Nguyen Du/응우옌 두, 1765-1820)는 관직을 사양하고 은퇴해 있던 중 嘉隆12년(1811) 1월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勤政殿 學士로 임명되었는데 1812년 淸나라에 보내는 朝貢使臣의 신분으로 中國 北京에 이르게 된다. 이듬해 4월까지 北京에 체류하고 귀국하던 阮攸는 당시 유행하던 『金雲翹傳』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를 입수하여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 작품을 읽고 왕취교의 비극적 인생에 깊은 동정을 느끼고는 자신의 시적 영감을 투영하여 베트남 고유의 淸喃(字喃)문자를 써서 六八體의 민가형식으로 장편서사시를 창작했다. 처음 그는 이 작품을 『斷腸新聲』(애끓는 사연의 새로운 노래)으로 이름 붙였지만 얼마 후 그의 친구 范貴適이 이 책을 간행하면서 『金雲翹傳』으로 명명하고 권두에 시 한 수를 덧붙였다. 그 시는 이러하다.

詩云

佳人不是到錢塘，
半世煙花債未償。
玉面豈應埋水國，
冰心自可對金郎。
斷腸夢裡根緣了，
薄命琴終怨恨長。
一片才情千古累，
聲到底爲誰傷。

시에 이르기를:

아리따운 여인이 스스로 전당에 간 것은 아닌데
반평생 기녀노릇 진 빚을 못다 갚았도다
옥같은 얼굴을 어찌 물 속에 묻혀야 할까마는
얼음같은 마음은 절로 낭군(김중)에게 향한다네
애끊는 사랑의 인연 꿈속에서나 이루어질까
박명한 거문고 끝내 원한만이 길게 남아라
한 조각 재주와 사랑의 흔적 천고에 누가 되어
새 노래 가락은 도대체 누굴 위해 애답다 하는가¹⁶⁾

이 책의 권두에는 또 반고초의 題詞도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有明一代無雙妓，
大越千秋絕妙詞。

명나라 제일 가는 둘도 없는 기녀 형상
월남역사 천추에 길이 남을 절묘한 노래

阮攸의 이 책은 나온 뒤에 곧바로 당시 베트남 전역에서 크게 유행하여 독자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수많은 판본이 양산되었다. 그에 따라 또 다른 이름으로도 널리 불려져 『金雲翹傳』, 『金雲翹』, 『翠翹』, 『王翠翹註解新傳』, 『翹傳』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졌다. 일반 사람들은 줄여서 그냥 『翹』라고도 불렀다.

阮攸의 장편 서사시는 베트남 문학사가들에게서 “베트남의 『홍루몽』”이라는 稱譽를 받기도 하였으며 베트남 고전 六八體중에서 최고의 명작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베트남에서 월남서사시 『翹傳』과 중국소설 『金雲翹傳』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

16) 이 시는 黃鐵球의 번역본 권두에 실은 影印에서 그 原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亞非文學叢書/越南/金雲翹傳』(阮攸 著·黃鐵球 譯,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59) 董文成的 책에서는 根字가 情字로 오식되어 있다.

작되었다.¹⁷⁾ 원문 『金雲翹傳』이 베트남어로 번역된 것은 1981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서다.¹⁸⁾ 작품 평가에 관한 베트남 학자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이 작품을 베트남 고전문학의 정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阮文環은 「베트남 고전문학중의 가장 위대한 시인—阮攸」(中文)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유의 모든 작품중에서 특히 『金雲翹傳』은 베트남 문학사는 물론 베트남 국민들의 문화생활과 사상적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金雲翹傳』이 나온 지 150여 년 이래로 베트남의 역대 문학연구가와 평론가들은 시대를 달리하고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 심미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 작품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끊임없는 토론과 비평,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 문학사에서 『金雲翹傳』에 관한 역대 논쟁은 그 자체로서 학술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직접적인 정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였다.¹⁹⁾

阮攸의 서사시 『金雲翹傳』을 1959년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黃鐵球도 번역본의 「譯後記」에서 이 책이 지난 1백여 년 이래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널리 애송하던 작품이었으며 후대 시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념비적인 명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근대이후 베트남의 외세항거 운동에서 혁명가들도 『金雲翹傳』의 체제와 표현을 빌어 선전이나 항쟁을 위한 시가를 만들곤 하였을 정도로 이 작품은 이미 국민문학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었다.

베트남의 회곡이나 민간문학에 대한 『金雲翹傳』의 영향도 적지 않다. 『翠翹遊春』, 『翠翹賣身』, 『宦氏妖妬』, 『翹傳』一,二,三集 등의 곡目が 공연되고 원작의 구절을 모아서 새롭게 만든 「集翹」, 등장인물이나

17) 국내에서는 최기묵의 「金雲翹와 翠翹傳詳註를 통해 본 월남소설의 변모」라는 논문이 한국한문학회 1997년도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1997.12.13. 연세대학교. 未見

18) 未見

19) 「越南古典文學中最偉大的詩人—阮攸」, 『文學評論』제6기, 北京, 1964.

고사를 새롭게 노래한 「詠翹」 또는 「賦翹」, 작중 내용을 중심으로 인물이나 시간 등을 알아 맞추는 수수께끼 형식의 「謎語」 등 다양한 형식의 시문과 대련 등이 널리 전해지고 민간 문학이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문학 재창작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 베트남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전해지고 있다.²⁰⁾

여기서 중국소설 『金雲翹傳』과 베트남 장편서사시 『金雲翹傳』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²¹⁾ 1958년 9월에 쓰여진 黃鐵球의 「譯後記」의 소개에 따르면 『金雲翹傳』 전체를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국소설과 베트남 서사시의 내용은 인물과 줄거리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阮攸의 『斷腸新聲』이 완성된 것은 그가 북경에서 돌아온 다음해인 1815년경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소설 『金雲翹傳』이 출현과 약 1백60여 년의 시차가 있다.

主題思想의 측면에서 양자를 비교하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는데 靑心才人의 창작 목적은 전형적인 美人薄命의 유형에 속하는 王翠翹를 위하여 立傳하기 위한 것으로 그녀의 비극적 운명을 밝히고 재주와 미색과 애정을 겸비한 전통적 미덕 이외에 자아희생의 정신과 恩怨이 분명하고 강렬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왕취교를 그려내고자 한 것이었다. 阮攸의 창작 동기와 목적은 이와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는 스스로 懷才不遇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중국소설의 고사를 빌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기탁하고자

20) 아쉽게도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소설 『金雲翹傳』도 완전하게 번역되어 간행한 바 없으므로 앞으로 이를 번역, 소개하는 일이 시급하다.

21) 이에 관해서는 董文成의 성과가 비교적 풍부하다. 본고에서는 그의 「中越金雲翹傳的比較(上·下)」(『清代文學論稿』, 春風文藝出版社, 1994)와 「中越『翹傳』宏觀比較」 및 「中越『翹傳』微觀比較」(『插圖本中國文學小叢書 75, 金雲翹傳』, 春風文藝出版社, 1999)를 주로 참고한다.

한 것이었다. 중국소설의 원전에는 정 많은 작자의 입장에서 고급의 佳人들이 겪어야 했던 불행한 운명을 함께 안타까워하고 동정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阮攸의 개편 작품에서는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없는 불우한 인생과 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중인물에 대한 阮攸의 입장을 정리하면 첫째 반란을 주도한 영웅인물을 의식적으로 貶下하고 관군의 장수를 치켜세우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래 王翠翹가 徐海를 처음 대했을 때의 묘사 중에는 “영웅의 기품을 품고 있으니 마땅히 太原의 異人(즉 李世民을 말함)에 속할 것이요, 平原君이라도 이보다 더 활달치는 못하리라”고 한 말이 있는데 阮攸의 작품에선 그저 江湖를 유랑하는 武士임을 강조하여 그의 영웅적 기개를 약화시키는 감이 있다. 阮攸는 조정에 반기를 든 해적의 두목으로서 徐海를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농민봉기에 대해 품고 있던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소설 『金雲翹傳』의 작자는 민중의 편에서 서서 탐관오리를 미워하고 무능한 관군을 통박하며 오히려 힘없는 민중을 위해 봉기하여 관군을 격파하는 徐海의 거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민중을 대표하여 일말의 희망과 용기를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작중인물의 입을 빌어서

태평세월이 오래 지속되니 사람들은 兵事를 모르게 되었다. 무사들은 뒷사람 모시기에게만 바쁘고 문관들은 아침하는데 습관이 되었으며 장수들은 훈련을 게을리 하고 전투 경험이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금고의 북소리가 한번 들리고 살벌하게 달려드는 위세가 닥치니 손발을 벌벌 떨며 어찌할 줄 모르고 삶과 죽음을 구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누가 감히 한 목숨 바쳐 기를 쓰고 싸우려고나 하려는가.

조정과 묘당에는 비록 호걸다운 호걸이 하나도 없지만 초야에 어지러운 더미 속에 오히려 드높은 영웅이 있다네²²⁾

이는 작자가 분명 민증편에 서서 민증봉기의 영웅으로서 徐海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阮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참가한 바 있는 西山 농민반란에 대한 진압의 경험과 관련하여 督府 胡宗憲을 은근히 미화하고 관군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이에 대항하는 반란군에 대해 극도의 미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胡宗憲이 나타났을 때 원작에 들어 있는 은근한 풍자와 비꼼을 모두 삭제하고 정면에서 그의 위엄과 재주를 묘사하고 있는 다음 대목이 그를 증명한다 하겠다.

홀연 한 분의 총독이 당도했는데 조정에서 그에게 의지하는 바가 매우 중했다. 그 이름은 호종헌으로 재주와 식견이 넓고 통달하였다. 교지를 받아 출사하니 황제의 권속이 바야흐로 응성하고 바다의 해적을 물리치는 군사들의 전권을 한 손에 쥐게 되었다.²³⁾

중국소설 『金雲翹傳』에서는 봉건귀족에 대한 비판이 은연중에 많이 드러났지만 阮攸의 작품에서는 이를 약화시킨 면이 적지 않다. 이는 아마도 관리로서의 체면을 생각해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황제의 직속 관리로서 파견되어 온 天官에 대해 原作에서는 그들의 악랄함이나 교활함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과 성토가 있었지만 阮攸의 작품에서는 이를 미화한 경우가 역시 적지 않으니 유가적 정통사상의 발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阮攸는 또 자신이 귀족 출신으로서 문벌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작중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장편서사시로서 阮攸의 『金雲翹傳』은 다음과 같은

-
- 22) “太平已久，人不知兵。武弁習爲奉承，文官習爲夤緣。主帥不習兵戈，不嫻戰鬪。一聞金鼓之聲，一見殺伐之威，便手足無措，救死不贖，誰敢角勝爭奇乎？” “廟堂之上雖無豪傑，而草莽之中實有英雄。”
- 23) “突然來了一位總督，朝廷倚重，名喚胡宗憲，才識宏通。奉旨出師，帝眷方隆，剿除海寇，軍事全權操縱。” 董文成 「中越『翹傳』微觀比較」에서 재인용.

몇 가지 긍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 자국의 민족문화 형식을 중시하고 민가의 예술기교를 최대한 활용하여 베트남 고유의 六八體로서 작품을 창작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된 중국문학이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수용하고 발전하게 되는 일반적인 변화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권두의 題詞에서 “명나라 제일 가는 둘도 없는 기녀 형상, 월남역사 천추에 길이 남을 절묘한 노래”라고 한 것처럼 노래의 대상과 소재가 비록 명나라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 고유의 문학과 예술형식에 맞춰 절묘하게 노래 불려진 이 작품은 천추에 길이길이 남게 될 불후의 명작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둘째 阮攸는 소설가라기보다는 그 스스로 시인이었으므로 예술적 기질로 말하면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중 인물의 묘사나 사건의 전개에서 매우 아름다운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오랫동안 베트남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여러 대목에서 인물의 심리묘사와 정경묘사를 적절하게 교차하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때때로 작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표현이 지나칠 때도 있지만 시인다운 서정적 묘사는 작품을 더욱 빛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阮攸는 중국문학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폭넓은 수양을 겸비하고 있어서 중국작품을 충분히 소화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점이다. 그가 쓴 漢詩集이 세 권이나 있었으며 장편 서사시 『金雲翹傳』을 새로 쓸 때도 수많은 중국의 전통시사와 명구를 활용하여 베트남 고유의 쓰놈문학에 수많은 어휘를 보충시키고 새로운 표현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문화교류 및 비교문학에서 더할 수 없이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명대 嘉靖연간에 있었던 실존인물 王翠翹에 대한 이야기는 徐海와 胡宗憲이라는 혁혁한 역사인물의 배경에 힘입어 초기에는 일부 역사기록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널리 전파되어 다양한 민간 전설과 각양각색의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하였다. 명말 청초에는 저명한 재자가인소설의 하나로 『金雲翹傳』이 간행되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朝鮮과 日本은 물론 베트남에까지 전해져 동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762년 完山李氏의 『중국소설희모본』서문에 그 이름을 『王翠翹傳』으로 적은 바 있고, 일본에는 1754년 전래되었다는 舶載書目的 분명한 기록과 함께 10년 뒤인 1763년 일본어로 번역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 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나타난 수많은 번역과 번안 및 재창작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일본 근대의 통속소설가 馬田柳浪의 『朝顔日記』나 曲亭馬琴의 『風俗金魚傳』 등은 『金雲翹傳』의 인명과 지명을 모두 자국의 것으로 바꿔 자국문학사를 살찌우게 한 좋은 예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1813년 청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된 阮攸가 당시 북경에서 유행하던 『金雲翹傳』을 구입하여 자국으로 가져간 이후 시인으로서의 역량울 최대한 살려 이를 번역하여 3천여 행의 월남 고유어(喃語) ‘육팔체’의 민가형식의 서사시로 만들었다. 처음 제목을 『斷腸新聲』으로 하였다가 시인의 친구 范貴適이 간행할 때 『金雲翹新傳』으로 고쳐진 이 작품은 베트남문학사 최대의 명작으로 자리잡아 세계 각국에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베트남으로 전해져 최고의 문학적 영예를 누린 王翠翹 이야기 『金雲翹傳』은 또다시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의 소수민족 京族의 민간구비문학으로 전해져 중국남부 변방지역에 널리

전파되어 『金仲과 阿翹』라는 제목으로 끊임없이 탈바꿈하고 있음이 알려져 더더욱 생명력 있는 문학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21년 아직 중국에서 『金雲翹傳』의 존재에 대해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의 梁白華는 이 작품의 인물과 줄거리를 소개하고 사랑을 씨줄로 삼고 고통을 날줄로 삼고 있는 이 작품에서 뜬 세상의 무정한 의리를 묘사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만들어 넣은 작자의 구성수완이나 기법이 불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힌 『홍루몽』이나 음란과 외설에 빠진 『금병매』보다는 『金雲翹傳』을 추천하고자 하며 같은 재자가인소설 중에서도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1931년 孫楷第의 『일본동경소견소설서목』에서 비로소 이 작품의 판본 전파에 관해 조사하고 간략한 작품평가를 덧붙이고 있는데 비하면 完山李氏의 著錄에서부터 梁白華의 평론에 이르기까지 『金雲翹傳』과 우리나라와의 인연 또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관련 자료가 더욱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아시아 각국과의 비교문학은 물론 한국고전소설과의 구체적인 비교고찰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王翠翹고사 및 『金雲翹傳』 관련 年表] (稿)

- | | |
|-------|---|
| 1551 | 明(嘉靖30년) 海寇 徐海 浙江해안에서 舉事 |
| 1556 | 明(嘉靖35년) 海寇 徐海, 督府 胡宗憲에 섬멸됨, 自殺 |
| 1564 | 明(嘉靖43년) 以前 茅坤 『紀剿徐海本末』저술, 「附紀」(王翠翹故事) |
| 1566 | 明(嘉靖45년) 以前 王世貞 『續艷異編』에 수록된 「王翹兒傳」이 만들어짐 |
| 1644前 | 明末 余懷 문언소설 『王翠翹傳』(1909 蟲天子 『香艷叢書』에 수록)
明末 周清原 化본 「胡少保平倭戰功」(『西湖二集』제34회) |

- 明末 陸人龍 小説 「胡總制巧用華棟卿, 王翠翹死報徐明山」
(『型世言』제7회)
- 明末 無名氏 小説 『兩香丸』
- 明末 崇禎年間 青心才人 창작 『金雲翹傳』
- 1662前 清初 順治年間 『金雲翹傳』(貫華堂評論, 天花堂主人序, 山水隣刊本)
- 1722前 清初 王鑣의 小説 『秋虎丘』
- 1722前 清初 葉稚斐의 小説 『琥珀匙』
- 1722前 清初 康熙年間 『金雲翹傳』(嘯花軒簡本)
- 1754 日本 船載書目에 『金雲翹傳』著錄, (中國 乾隆19年, 日本 寶曆4年)
- 1762 朝鮮 完山李氏 『中國小說繪模本·序文』에 『王翠翹傳』著錄
- 1763 日本 西田維則의 翻譯本 『繡像通俗金翹傳』, 大阪藤屋彌兵衛刊行, 共5卷, 6冊
- 1764前 清 乾隆 李百川의 『綠野仙踪』에 海寇소탕 部分 일부포함
- 1812 日本 馬田柳浪의 醜案作品 『朝顔日記』刊行(日本文化8年)
- 1812 越南 阮攸 正使신분으로 淸나라 北京에 파견
- 1813 越南 阮攸 歸國시에 『金雲翹傳』구입하여 가져감
- 1813 日本 來島千助의 改편小説 『生死葬日記』, 大阪 堀江에 공연
- 1815 日本 奈何晴助의 改편小説 『警世筑紫琴傑』, 공연
- 1829-1832 (日本 文政12年-天保3年)
- 日本 曲亭馬琴의 醜案作品 『風俗金魚傳』, 江戶 森屋治兵衛 刊行
- 1832 日本 山田案子の 改편評彈 『生寫朝顔話』,
- 1850前 清中葉 夏秉衡 小説 『雙翠圓』
- 1921 韓國 梁白華 평론문 「破睡漫草一金雲翹傳」, 『開關』12-14號, (6-8월)
- 1931 中國 孫楷第 『日本東京所見小說書目』에서 『金雲翹傳』著錄
- 1957 中國 排印本 『金雲翹傳』(縱書, 無標點符號)간행, 人民文學出版社
- 1959 越南 阮攸著, 黃軼球譯 『金雲翹傳』, 北京人民文學出版社
- 1983 李致忠校點, 『金雲翹傳』(明末清初小說選刊), 春風文藝出版社
- 1985 劉蓮麗校點, 『金雲翹傳』(明清中篇小說選), 浙江文藝出版社

- 1999 董文成著『金雲翹傳』(插圖本中國文學小叢書75), 春風文藝出版社

<參考文獻>

- 青心才人, 『金雲翹傳』(明末清初小說選刊), 春風文藝出版社, 1983 (李致忠校點)
- 青心才人, 『金雲翹傳』(明清中篇小說選), 浙江文藝出版社, 1985 (劉蓮麗校點)
- 蟲天子, 『香艷叢書』, 人民文學出版社, 1990 影印本 -->1992년
- 周清原, 『西湖二集』, 人民文學出版社, 1989 (周楞伽整理)
- 陸人龍, 『型世言評注』, 新華出版社, 1999 (陳慶浩校點)
- 梁白華, 『破睡漫草一金雲翹傳』, 『開關』12-14號, 1921. 6-8월
- 越南阮攸 著·黃軼球 譯, 『金雲翹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8.
- 董文成, 『金雲翹傳』(插圖本中國文學小叢書75), 春風文藝出版社, 1999
- 董文成, 『清代文學論稿』(金雲翹傳, 聊齋志異與滿族文學), 風文藝出版社, 1994
- 陳益源, 『越南漢文小說傳奇漫錄的淵源與影響』(『域外漢文小說論究』), 臺灣: 學生書局, 1989
- 陳益源, 『越南『金雲翹傳』的漢文譯本』, 『中華文化與世界漢文學論文集—文學絲路』, 臺灣: 世界華文作家協會, 1998. 8.
- 陳益源, 『從影響層面看中國小說的歷史定位—以青心才人『金雲翹傳』為例』, 『中國語文論叢』제15집, 1998. 12
- 崔裕澈, 『王翠翹故事的 변천과 『金雲翹傳』의 작품분석』, 『中國語文論叢』제16집, 1999.6